코로나 설날, 따뜻한 나눔으로 이겨내

부산 및 경남 사찰 나눔 행보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불교 7000만원 상당 백미
자비의 백미 및 성금 등 줄지어
힘든 시기 나눔 지속 등 '훈훈'
"코로나 나눔으로 이겨 낼 터"



부산불교연합회 회원들이 2월 4일 부산 진구청을 찾아 쌀 2010포대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외롭게 설 명절을 맞는 소외 계층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신도단체들과 각 사찰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 및 성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설날을 맞아 2월 4일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부산진구청, 금정구청, 남구청에서 각각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백미는 총 7000만원 상당의 백미 2010개이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진구청에 850포(3000만원 상당), 금정구에 580포(2000만원 상당), 남구 550포(2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각 기관에 전달한 쌀은 독거노인, 저소득 세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에 전달되며, 각 동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에게 직접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이자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대표 박수관 회장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30년 이상 꾸준히 펼쳐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정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한데 오히려 소외 이웃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박수관 회장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앞장섰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미 전달식을 위해 박수관 회장은 5000만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2000만원을 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 **조계종 청량사**가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자비나눔을 전개했다.

청량사(주지 운암)는 1월 29일 부산 강서구청 구청장실에서 2021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노기태 청장 외 관계자 및 청량사 불교대학 지도법사 능서 스님, 김무겸 신도회장, 노미옥 불교대학 총동문회 총무가 동참했다. 전달 성금 및 현물은 총 532만 2,360원이며 지역 내 어려운 지역민에게 회향 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능서 스님은 "주지 운암 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 오늘 전달하는 자그마한 정성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사(주지 혜명)는 1월 25일 반야사 경내 및 창원 회원구청에서 '제21회 부처님의 자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을 진행했다.

반야사는 이날 백미 100포(350만원 상당)를 회원구에 전달했으며 백미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 경문스님과 박주야 창원 회원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더욱 힘겨워졌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28일 남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300만원과 쌀 2600kg(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성금 및 쌀은 남구 지역 내 주민센터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 감사 능후 스님,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박재범 남구청장이 동참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다. 서로를 위한 자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는 1월 28일 반야보전에서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종사는 이날 라면 300박스(450만원 상당)를 양산 평상동 및 장흥마을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여해 스님, 최월선 양산 평상동 동장 및 장흥마을 지역민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여해 스님은 "자비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불자님들이 계셔서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불자님들이 보시바라밀을 통해 성장하도록 기원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 왕복사(주지 자우)도 2월 3일 경남 산청읍사무소에서 '결손가정 청소년 돕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 물품은 컵라면 및 햇반을 담은 선물박스 60개(2백20만원 상당)이며 전달식에는 왕복사 주지 자우 스님, 현문 스님, 김종호 신도회장, 신현영 산청읍장이 참석했다. 선물 박스는 결손가정 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지 자우 스님은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비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며 "특히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조손 가정이 많다는 말에 불자들이 십시일반 기도에 동참하며 마련해 전달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명불원,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

1200여 불자 동참, 국내 '최대' 좌불

국내 최대 좌불이 봉안됐다.

부산 동명불원은 1월 29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증명, 김해 해광사 주지 원공 스님, 범어사 상노전 석경 스님이 집전했다. 점안식은 유튜브 부산불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으며 온 · 오프라인 동시 법회로 진행됐다. 아울러 BBS 불교방송을 통해 3회에 걸쳐 방송된다.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은 국내 좌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석가모니불이 본존불이며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을 모셨다.

이번 개금불사는 동명불원 창건 이후 두 번째 개금불사이다. 20여 년 동안 불상이 균열되고 금분과 좌대 단청의 퇴색으로 장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동명불원이 1월 29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삼존불 불사는 지난 9월 14일 착공해 올해 1월 3일, 4개월에 걸쳐 준공됐다. 이번 개금불사를 위해 1265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시대이다. 나라의 경제 발전과 전법을 위해 노력한 고 강석진 회장의 공덕이 녹아 있는 동명불원의 불사가 회향됐다.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사를 통해 자성불의 보배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도 부산 자비도량으로"

삼광사 · 광명사 등 천태종 사찰 주지 진산식 개최해

부산 천태종을 대표하는 삼광사와 광명사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삼광사(주지 영제)는 2월 1일 제13대 주지 영제 스님 취임법회를 경내 지관전에서, 광명사(주지 춘광)는 2월 3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5대 주지 춘광 스님 취임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천태종 대표 도심도량 삼광사와 광명사를 새롭게 이끌어 갈 주지 스님들은 '포교'와 '수행 정진'으로 불도 부산을 자비의 불국토로 만들어 갈 것을 천명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은 "중생들의 고뇌와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이어 "불자님들은 관음정진 수행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부산에 가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포교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포교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천태종을 대표하는 삼광사와 광명사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이 화동에게 꽃을 받고 있는 모습.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삼광사는 한국불교와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며 "모두 하나가 되어 대조사님의 뜻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천태종 수행가풍을 이어 기도도량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광 스님은 1971년 대한불교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대한불교천태종 교화원 의전실장,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 감사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구 대성사, 서울 성룡사, 삼룡사, 강릉 삼개사,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국제불교 한 · 중 · 일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부산교구, 신년하례 봉행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가 제19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및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2021년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원장 마나)는 2월 1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제19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년하례 및 종무원장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상축,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원장 스님의 취임사에 이어 국장 스님들의 임명식도 이어졌다. 총무국장은 천명사 주지 보신 스님이 임명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궁(名弓)이 쏜 화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돌멩이 하나로 꿩 두 마리 잡았다(水地比)
천문동(天門冬)과 통쾌희(痛快喜)의 합동작전 개시!"

천문동, 회화실, 강황, 황금, 도라지 外 3종 성분 및 효능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 유근피 外 2종 인터넷 참조

기침, 가래, 비염, 호흡기, 기관지, 천식, 폐질환
무릎, 팔다리, 허리, 관절통, 뒷목, 연골 보호, 소염, 진통

※부디 99세까지는 기침, 가래, 비염, 기관지, 호흡기, 폐 질환, 흡연, 바이러스(천문동)에 맡기시고 무릎, 팔다리, 손목, 뒷목, 허리관절통과 연골 소염진통은(통쾌희)가 마무리할 것이니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조과정 :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씨 등을 깨끗이 정제한 후 대형 열 탱크에 넣고 가열하여 진액(一名 엑기스)을 추출한 후 미리 법제한 국산 토종 천문동과 회화 열매 분말과 합제 한 후 쇳가루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녹두대 丸으로 제조되었다.
※워낙 고가의 재료와 제조과정이 까다로워 판매 보급가가 부담이되실까 염려되어 일단 무료체험 기회를 드릴 것이니 희망자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200명에게만 배송해 드립니다. 배송비 4,000원만 부담하십시오! 단 무료로 드시는 대신 10일 동안은 꾸준히 드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 후에 선택과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십시오.영양제나 보약처럼 장기복용이 아니라, 짧고 굵게 20日~30日이면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신의 혼을 담아 지극히 효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자: 林大業)
※주소 : 문자 주십시오. 010-7159-5737/010-8181-2699 농협계좌 : 355-0068-7416-53 (호산헬시코리아, 임대업)

| 무료 체험용 |



50g 10일분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할 의무다!
왜? 자식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비지니스, 효도선물로는 최고의 제품)